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에 나타난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 탐색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윤 중 회¹⁾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의 생각을 조사하여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동의 모습에서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을 탐색하고, 이상적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체계에 근거한 양육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데 있다. 서울시 강북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158 명씩과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7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삼인조 연구이다. 부-모-교사의 이상적 아동관과 일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개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아동에게 매일매일 가장 권장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또 금지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와 이유를 자유롭게 적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별, 순위별, 이유별로 엑셀 파일에 정리한 후, 양화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SPSS Win 12.0 프로그램에서 통계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부-모-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동은 ‘근면성, 전문성, 리더십, 주의집중력과 좋은 친구관계’를 갖춘 모습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교사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행동은 ‘근면성’과 ‘정직’이며, 다른 권장 행동은 부모의 경우에 ‘건강’과 ‘부모공경 및 가족우애’, 교사의 경우에 ‘리더십’과 ‘타인배려’였다. 부-모-교사가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은 ‘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배려 않기’이며, 다른 금지행동은 부모의 경우에 ‘건강해치기 않기, 돈 꾸기, 과소비 금지,’ 교사의 경우에 ‘기본질서 해치지 않기’였다. 부-모-교사의 이상적인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체계와 일상생활의 양육행동 간에는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학적 용어로 재해석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부모역할 및 교육에 관한 함의와 더불어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주요어 : 이상적 아동관, 양육신념체계, 양육행동, 생태학적 접근, 부-모-교사 삼인조

* 이 논문은 2004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 yoon4472@dongduk.ac.kr)

I. 서 론

인류는 역사적으로 자국의 고유한 문화가치관으로 사회화된 구성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한 작업의 중요성은 그 사회의 생존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차세대를 얼마나 경쟁력 있게 길러내는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의 자본과 기술 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차세대 이상형은 지적·기술적으로 유능하고, 정서·신체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져 있으며, 한 민족의 정체성을 중심에 지니고, 세계인과 교류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차세대 이상형을 양성하는 과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적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갖춘 성숙한 인격의 부모와 교사를 비롯하여 사회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묵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가지고 협동해야 하는 과제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2세 교육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체계간의 연계성이나 통합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적 가치관을 중심에 지니고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이상적인 차세대를 양성하는 작업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과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의 신념체계가 어떠한 차세대 이상형을 추구하는지, 차세대 이상형에 반영된 그들의 가치 및 신념체계가 실제로 일상적 양육행동으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가치 및 신념체계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 및 신념체계와 세계화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규명

될 필요가 있다.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의 차세대 양육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우리의 자녀양육 문화가 세계 속에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독자성을 규명하는 일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다.

차세대 이상형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부모·교사의 가치관에 어떻게 내재되어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가족과 학교는 어떻게 협동하는지, 이러한 분석 결과가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각 문화권이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Super 교수와 Harkness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방대한 규모의 비교문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Rubin & Chung,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국외의 연구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이상적인 아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탐색하여 그들의 양육 신념체계를 탐색하고, 이것이 부모의 일상적인 양육행동에서, 또 교사의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모와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동은 어떠한 모습인지 탐색하고, 이러한 아동관에 근거한

1) Harkness와 Super(1995)에 의하면 특정 문화권에서 아동이 성공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질이라고 보는 내용이 이상적 아동관이 된다. 이러한 특징적 자질은 부모의 양육신념 화되며, 양육신념은 다시 양육행동으로 실천된다. 본 연구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고자 한다. 즉, 양육신념체계의 개념적 정의는 이상적 아동관이며, 조작적 정의는 아동이 그 문화권에서 성공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질로 지목된 내용이다.

그들의 양육가치 및 신념체계가 일상생활에서 양육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부모역할 및 교육에 관한 합의와 더불어 문화적 보편성 및 특수성에 대한 비교 문화적 논의를 하는 데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 인간발달의 생태학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따르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연구범위가 제한됨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발달의 본질적인 면을 다루면서 광범위한 발달과정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것이 발달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확장한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이다. 그의 초기 이론을 살펴보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제안이 무수하다(1977, 1979). 그 중 하나가 우리에게 익숙한 다차원의 환경체계에 대한 제안이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여 정의된 개념과 명제들 덕분에 우리는 환경을 특정 상황에서 1인 또는 많아야 2인의 행동관찰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차원의 환경체계로 관심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그가 제안한 개념적 정의에 따라 환경체계를 이론적으로 조작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제안으로 Bronfenbrenner는 이인조(dyad)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 설계를 권장하고, 이를 “N+2 체계”라 명명하였다 (1977, 571쪽). 그는 모-자녀로 구성된 이인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설계보다

부-모-자, 부-모-녀, 형-제-모, 형-제-부로 구성된 삼인조 설계,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구성원, 예를 들어 부-모-자-녀-조부-조모-삼촌-외삼촌-고모-이모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는 설계를 할 때에 비로소 인간발달 연구의 생태학적 도메인이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양육환경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되는 두 개의 미시체계인 가정과 학교를 선택하여, 아동의 사회화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N+2” 이상의 미시체계 기능을 확인하고²⁾, 이들 미시체계간의 협조가 우리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이상적 아동관 창출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여 중간체계의 효율성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또 이들과 같은 일차적인 사회화의 대행자를 통해서 거시체계인 한국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이상적 아동관은 어떤 모습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연구동향

아동의 사회화 및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을 주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을 개관해보면,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주요 원천으로 부모와 교사를 함께 인식하고 이들이 아동의 일상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또는 상호작용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속한 문화가 요구하는 독특한 특성을 차세대에게 전수·발달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나, 그러한 주

2) 본 연구에서 Bronfenbrenner의 “N+2 체계”를 연구 설계에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삼인조라 서술하였으나, 묵시적으로는 아동을 중심에 둔 부-모-교사의 삼인조 연구 설계인 셈이다.

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과의 관계, 아동의 특성과 양육행동 및 발달간의 관계, 교사의 역할과 아동발달간의 관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일일이 지목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또한 최근 10년간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관련된 신념을 주제로 한 연구도 소수 눈에 띄나 (구순주, 최보가, 1996; 김지신, 1996; 안지영, 2001; 이완정, 현온강, 1999), 자녀 교육을 주제로 “이상적 아동의 모습”에 대한 신념이나 이에 대한 일상적인 행동을 규명하려 시도한 국내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하나의 연구에서 부모가 있는 가족, 교사가 있는 학교, 차세대 이상형을 반영하는 사회 단위들 간의 교류적 측면을 통합하려 시도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서구에서도 최근에는 소수의 몇몇 학자들 중심으로 자국 교육의 가치관이 어떻게 차세대에게 전수되어 그 문화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을 양성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최근 보고한 결과에서는 차세대 이상형에 대한 각국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신념 체계가 부모 및 교사의 교육 가치관에 반영되어 양육관행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arkness, Moreno, Super, Axia, Welles-Nystrom, Kolar, Zylicz, & Tijenl, 2000; Lieblin, 2004).

Harkness와 그 동료들(2000)에 의하면, 미국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격 특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묘사하게 한 결과, 지적으로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부적응적인 행동과 감정을 보이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가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기대는 서구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인식되는 성인의 모습을 창조하는데 기여한다. 부모의 기대는 그들의 생각에 반영되어 신념화되고, 이는 다시 자녀 양육행동으로 실천된다(Harkness, et al, 2000). 실제로 네덜란드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성장하려면 자녀의 일과가 규칙적이면서도 여유로워야 한다고 인식하여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로 식사와 취침을 규칙적이 되도록 실천하고 있음이 Harkness와 Super(1995)에 의해 발견되었다.

결국, 양육행동은 각 문화마다 독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의 기능성과도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문화적 보편성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Harkness & Super, 1995; Power, Kobayashi -Winata, & Kelly, 1992). 따라서 그 사회의 영속적인 발전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신념과 양육방식이 그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발달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에서의 양육목표와 양육행동은 학교현장에서의 교육과 연계되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부-모-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응답에 나타난 이상적인 아동은 어떠한 모습인가?
2. 우리나라의 부-모-교사가 일상생활 현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아동에게 권장하거나 금지하는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3. 우리나라의 부-모-교사가 생각하는 이상

적인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체계³⁾와 일상 행동 간에는 일관성이 있는가?

4. 우리나라의 부-모-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 아동관은 가족·학교의 교류 정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 교사, 사회의 역할과 교육에 관하여 어떠한 제언과 합의가 가능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또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논의도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선정은 자녀의 연령별, 성별, 출생순위를 고려한 목적성 있는 임의 표집이었다. 그러나 확률표집의 원칙을 단계별로 최대한 시도하였다. 먼저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을 선정하고자, 1단계에서는 서울시 강북에 소재한 S교육청 산하 S구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체 명단을 모집틀로 하여 이를 동별로 분류하고, 두 급간의 학교가 모두 소재한 5개동을 선정하여 그 중에서 2개동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명단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밝힌 학교를 대상으로 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1개의 초등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섞여 있는 6학년의 학급을 선정하고, 중학교에서는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를 각각 1개교씩 택하여 3학년의 한 학급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 학급 학생의 부모가

각각 158명씩, 또 대상학교 전체의 교사 75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측정내용

부-모-교사의 이상적 아동관을 탐색하고 일상생활에서 권장하거나 금지하는 행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응답하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응답자들에게 틀에 박힌 대답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것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여 다양한 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응답방식 안에 세 개의 구성요소 - ‘중요한 것 3가지’를 ‘중요도 순서’대로 ‘중요한 이유’와 함께 적게 함 -를 반영하여 응답을 구조화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 질문내용

① 사회 인구학적 배경 및 가족 관련 질문으로 자녀 학년, 성별, 출생순위, 가족 형태, 부모 학력과 직업, 경제수준, 가족식사횟수를 질문하였다.

② 이상적 아동관에 대한 신념체계와 일상적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중요도 순서에 따라 세 가지씩 쓰게 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함께 적게 하였다. 또한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가장 권장하는 행동과 금지하는 행동을 중요도 순서에 따라 세 가지씩 적게 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③ 학교 관련 사항 질문으로 부모의 학급활

3) 각주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처리함.

동/특별활동을 돕는 정도, 학교행사 참여 정도, 한 달 기준으로 교사가 가정에 보내는 통신문의 횟수, 어머니가 교사에게 전화, 편지, 메일 등을 보내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교사 질문내용

① 사회 인구학적 배경으로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교육 경력, 연수정도, 담당 학생 수, 보직 여부를 질문하였다.

② 이상적 아동관에 대한 신념체계와 교육 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부모용 질문지와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자료 분석

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를 ID에 맞춰 엑셀 파일에 수록하고, 모든 대상자의 응답을 검토한 후, 모든 응답자들의 질적 자료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호화 체계를 개발하였다. 아동학 전공자 2인과 사회복지학 전공자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구한 후, 부호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코딩하였다. 양적 자료와 함께 SPSS PC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 백분율, 카이자승 분석과 Cramer's V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초·중학생의 부모 및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모 대상자 자녀의 학년과 성별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86.7%의 자녀가 첫째나 둘째의 출생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65.7%가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어머니는 고졸이 가장 많았다(48.6%). 대상가족 대부분이 핵가족이며(91.1%), 중류의 경제수준(83.8%)이라 답하였다. 아버지 직업은 회사원과 전문직이 가장 많았으며(40.7%), 어머니는 주부가 가장 많았다(51.7%). 부모의 학교활동(63.3%), 학교행사 참여(60.9%), 학교로 보내는 메일(85.4%)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경우는 주 1-2회(37.1%)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통신문은 한 달 기준으로 3-4회가 가장 많았다(39.9%).

교사는 여성(62.7%), 기혼(85.3%), 40대 이상(57.3%), 10년 이상의 경력자(70.7%), 학사학력 소지자(76%)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50명 이하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고(65.7%), 보직이 없는 경우(52.8%)가 많았다.

연구문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부-모-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무엇이냐 생각하며, 응답에 나타난 이상적인 아동은 어떠한 모습인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로 근면성(근면성, 성실, 책임감을 포함하는 용어군으로 이하 근면성으로 통일함)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문성(전문성, 지식, 실력, 소질, 공부습관을 포함하는 용어 군으로 이하 전문성으로 통일함)과 친구관계가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 분	빈도(%)	특 성	구 분	빈도(%)
자녀 학년	초 6	75(47.5)	교사 성별	남	28(37.3)
	중 3	83(52.5)		녀	47(62.7)
자녀 성별	남	78(49.1)	결혼 여부	미혼	11(14.7)
	여	81(50.9)		기혼	64(85.3)
자녀 형제 순위	외동	18(11.4)	교사 연령	24-30	14(18.7)
	첫째	73(46.2)		32-39	17(24.0)
	둘째	64(40.5)		41-50	32(41.3)
	셋째이상	3(1.9)		51-60	12(16.0)
부 학력	중졸이하	4(2.8)	교사 연수 정도	년 3-4회	23(31.1)
	고졸	46(31.5)		년 1회	36(48.6)
	대졸	86(58.9)		2-3년 1회	12(16.2)
	대학원졸	10(6.8)		없음	3(4.1)
모 학력	중졸이하	11(7.6)	교사 교육 경력	1 년 미만	2(2.7)
	고졸	71(48.6)		1-5년 미만	10(13.3)
	대졸	57(39.0)		5-10년 미만	10(13.3)
	대학원졸	7(4.8)		10년 이상	53(70.7)
경제 수준	상	13(8.4)	교사 학력	학사	57(76.0)
	중	129(83.8)		석사	17(22.7)
	하	12(7.8)		박사	1(1.3)
가족 저녁 식사 횟수	없음	3(1.9)	담당 학생수	1-50 명	46(65.7)
	주1-2회	59(37.1)		51-100 명	1 (1.4)
	주3-4회	44(27.7)		101-150 명	5(7.2)
	주5-6회	26(16.4)		151-200 명	2(2.8)
	7회 이상	27(17.0)		201 명이상	16(22.9)
가족 형태	핵가족	144(91.1)	보직 여부	무	38(52.8)
	대가족	4(8.9)		유	34(47.2)
부 직업	행상, 일일노동자, 무직	7(4.6)	학교-> 가정통신문 (한 달 기준)	0회	19(12.4)
	근로자, 서비스종사자, 소규모 자영업자	57(37.5)		1-2회	58(37.9)
	회사원, 은행원, 교사, 공무원, 간호사, 약사, 경영주, 고급공무원, 의사, 판검사, 교수, 전문직	77(40.7)		3-4회	61(39.9)
	기타	11(7.2)		5-6회	11(7.2)
	주부	77(51.7)		7회 이상	4(2.6)
모 직업	근로자, 서비스종사자, 소규모 자영업자	39(26.2)	부모 학교 행사 참여	전혀 안함	49(31.4)
	회사원, 은행원, 교사, 공무원, 간호사, 약사, 경영주, 고급공무원, 의사, 판검사, 교수, 전문직	23(15.4)		거의 안함	46(29.5)
	기타	10(6.7)		보통	28(17.9)
				가끔 참여	26(16.7)
				매번 참여	7(4.5)
부모 학교 활동 도움	전혀 안 도움	61(38.6)	학교로 보내는 부모메일	전혀 없다	62(39.5)
	거의 안 도움	39(24.7)		거의 없다	72(45.9)
	보통	48(30.4)		보통	20(12.7)
	자주 도움	10(6.3)		자주 있다	3(1.9)

표 2. 부-모-교사가 지각하는 성공에 필요한 자질

분류	성공에 필요한 자질	아버지		어머니		교사	
		1 순위	1,2,3 순위 계	1 순위	1,2,3 순위 계	1 순위	1,2,3 순위 계
건강	신체 및 정신 건강	5(4.3)	16	8(6.7)	17		2
성격 및 자질	- 창의력/비전/미래지향적/모험심/변화에 민감하게 적응/도전성/진취성/추진력	3(2.6)	7	4(3.3)	6	5(7.7)	12
	- 리더십, 자신감, 판단력, 소신, 적극성	3(2.6)	11	4(3.3)	12	13(20.0)	20
	- 도덕성, 정직성, 양심적, 겸손	8(7.0)	28	6(5.0)	21	4(6.2)	11
	- 근면성, 성실, 책임감	28(24.3)	56	24(20.0)	64	9(13.8)	31
	- 감정 조절, 긍정적 사고, 심리적 균형감, 만족과 즐거움	4(3.4)	8	3(2.5)	14	1(1.5)	4
	- 끈기, 지구력, 인내심	2(1.7)	3	2(1.7)	3		5
	- 주의집중력, 지적호기심, 지적탐구정신	10(8.7)	27	6(5.0)	24	12(18.5)	23
학습 습관/ 지적 성취	- 명문교 입학,	1 (9.0)	7	5(4.2)	12	1(1.5)	1
	- 전문성, 지식, 실력, 소질, 공부습관	17(14.8)	43	20(16.7)	55	9(13.8)	22
	- 독서/정보/새로운 것에 대한 빠른 이해력과 발표력	4(3.5)	10	3(2.5)	9		3
인간 관계	- 부모공경, 가족우애			2(1.7)	4		
	- 친구관계,	16(13.9)	44	23(19.2)	51	3(4.6)	16
	- 타인배려/역지사지정신/인류애/포용력/ 희생정신	8(7.0)	20	6(5.0)	27	7(10.8)	18
	- 예의				1	1(1.5)	1
	- 협동심	4(3.5)	14	2(1.7)	11		6
기타		2(1.2)	9	2(1.7)	6		7
전체		115(100.0)		120(100.0)		65(100.0)	

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
질 1순위로 근면성을 꼽았으며, 친구관계와
전문성이 그 뒤를 이었다. 선생님들이 1순위
로 꼽은 것은 부모들과 달랐다. 그들은 리더
십(리더십, 판단력, 소신, 적극성을 포함하는

용어 군으로, 이하 리더십으로 통일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어 주의 집중력(지적
호기심, 지적 탐구 능력을 포함하는 용어 군
으로 이하 주의집중력으로 통일함)과 근면성,
전문성을 필요 자질이라 보았다.

부-모-교사가 1, 2, 3 순위 응답을 합계하면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과 결과가 같으나, 교사의 경우 순위가 달라져, 근면성, 주의집중력, 전문성의 순위가 된다.

따라서 부-모-교사의 1순위 응답과 1, 2, 3, 순위 응답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모-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자질은 근면성과 전문성이다. 다르게 언급한 자질은 부모의 경우는 친구관계, 교사의 경우는 리더십과 주의집중력이다.

이상과 같은 부-모-교사의 응답에서 합성되는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은 근면성과 전문성을 기본적인 자질로 갖추고, 리더십과 주의집중력이 있으며, 친구관계가 좋은 아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부-모-교사가 일상생활 현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아동에게 권장하거나 금지하는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부-모-교사의 권장행동

아버지들이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자녀들에게 1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건강이었고, 이어 정직과 근면성이었다. 근면성과 같은 순위에 부모공경과 가족우애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들 역시 자녀에게 건강을 가장 강조하였고, 이어 정직과 근면성을 강조하였다. 선생님들은 성공에 필요한 자질 1순위로 강조하였던 리더십을 일상생활에서도 1순위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면성과 타인 배려(약자 무시하지 않기)를 꼽아, 근면성 요인은 부모와 일치하였으나, 리더십과 타인배려는 일치하지 않았다.

부-모-교사의 1, 2, 3 순위 응답을 합계해보면 양상이 약간 달라진다. 아버지들은 건강,

근면성, 정직의 순위로, 어머니들 역시 건강을 1순위로 하여, 정직, 근면성의 순위로, 선생님들은 근면성, 타인배려, 정직의 순위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부-모-교사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행동은 근면성과 정직이며, 다른 행동은 부모의 경우에 건강, 부모공경과 가족우애이며, 교사의 경우에 리더십과 타인배려로 정리된다. 즉, 부-모-교사가 매일매일 자녀에게 권장하는 행동은 건강, 근면성, 정직, 리더십, 타인배려, 부모공경과 가족우애이다.

부-모-교사의 금지행동

부-모-교사가 금지하는 행동을 세 가지씩 순위별로 적게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금지하는 행동의 1순위는 정직, 솔직,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짓말과 도둑질 않기’였다. 이어 싸움, 욕, 거친 말을 금지하고,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TV 시청(눈이 나빠짐), 나태함, 담배, 공기가 안 좋은 PC방 출입, 고기 먹기, 이후 가족실패/우애 해치는 무시하기, 괴롭히기, 놀리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않기, 2순위는 싸움, 욕과 거친 말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지막 순위에서 아버지와 달리 타인 배려않기(약자 무시하기)를 금하였다. 선생님들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 도둑질 않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타인 배려않기와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금하였다. 선생님들은 이번에도 일부 행동은 부모와 일치하고(거짓 말, 도둑질, 타인배려 않기), 일부

표 3. 부-모-교사가 일상생활에서 권장하는 행동

분류	권장덕목	아버지		어머니		교사	
		1 순위	1,2,3 순위 계	1 순위	1,2,3 순위 계	1 순위	1,2,3 순위 계
건강	- 신체 및 정신 건강 챙기기	46(37.4)	74	45(34.6)	71	1(1.5)	5
	- 리더십, 자신감, 판단력, 소신, 적극성	3(2.4)	10	5(3.9)	12	17(24.9)	18
	- 정직성, 도덕성, 양심적, 겸손	22(17.9)	49	15(11.5)	47	5(7.4)	21
성격 및 자질	- 근면성, 성실, 책임감	14(11.4)	56	15(11.5)	45	15(22.1)	39
	- 자제력, 감정조절, 끈기	3(2.4)	7	8(6.2)	13	3(4.4)	6
	- 주의집중력, 지적호기심, 지적 탐구정신	4(3.3)	23	6(4.6)	30	4(5.9)	15
	- IQ		6	1(.8)	3		
학습습관/ 지적성취	- 명문교 입학	3(2.4)	8	4(3.1)	13		
	- 실력향상, 학습능력배양	3(2.4)	21	5(3.9)	19	4(5.8)	17
	- 스스로 공부하기, 공부 잘하기, 수업경청	1(.8)	4	1(.8)	11	5(7.4)	9
생활습관	- 계획생활/자율적 기본생활습관/정리정돈	1(.8)	1	3(2.3)	4	3(4.4)	5
	- 부모공경, 가족우애	14(11.4)	40	13(10.0)	32		1
인간 관계	- 친구관계	5(4.1)	27	4(3.1)	25	3(4.4)	12
	- 타인 배려, 사랑가지고 살기		4	1(.8)	8	10(14.7)	32
	- 예의, 공동체 질서, 바른 언행	2(1.7)	9	3(2.3)	12	2(3.0)	6
	- 협동하기	2(1.6)	7		2	2(2.9)	6
기타			4	1(.8)	6	1	1
합계		123(100.0)		130(100.0)		68(100.0)	

행동은 다른 면(기본 질서 해치기)을 나타냈다.

부-모-교사의 1, 2, 3 순위 응답을 합산해보면, 아버지들은 싸움, 욕, 거친 말 양기를 1순위로 꼽았고, 이어 거짓말과 도둑질, 돈 꾸기와 과소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 역시 같은 사항을 같은 순위로 금지하였다. 선생님들 역시 1, 2 순위는 부모들과 같으나 마지막 순위에서 기본질서 해치기를 꼽았

다.

이상의 응답을 종합하면 부-모-교사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은 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배려 않기이며, 다른 금지행동은 부모의 경우에 건강해치기, 돈 꾸기와 과소비 금지이며, 교사의 경우에 기본질서 해치기로 정리된다. 즉, 부-모-교사가 매일매일 자녀에게 금지하는 행동은 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

표 4. 부-모-교사가 일상생활에서 금지하는 행동

분류	금지행동	아버지		어머니		교사	
		1 순위	1,2,3 순위 계	1 순위	1,2,3 순위 계	1 순위	1,2,3 순위 계
건강	- 몸과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금지하는 tv(눈), 나태함, 담배, 공기 안 좋은 PC방 출입, 고기 먹기	7(6.4)	13	7(5.7)	17	1(1.5)	5
성격 및 자질	- 정직, 솔직, 양심적인 사람 되기 위해 거짓말/도둑질 않기	49(45.0)	67	47(38.5)	69	21(31.9)	32
	- 책임감 결여	1(.9)	7	2(1.6)	4	4(6.0)	12
	- 자제력, 감정조절, 분노조절, 참을성 부족	3(2.7)	3	1(.8)	3	1(1.5)	4
	- 주의산만	2(1.8)	3	2(1.6)	3	1(1.5)	1
학습습관 지적성취	- 공부 방해할까봐 금지하는 외출, 놀기, 친구와 너무 어울리지 않기, 떠들지않기, 컴퓨터 게임, 책 적당히 읽기	4(3.7)	14	4(3.3)	15	2(3.0)	9
생활 습관	- 방청소와 정리정돈 않기, TV, 오락, 컴퓨터 게임, 음란물, PC방 출입	5(4.6)	20	6(4.9)	27	1(1.5)	7
	- 습관이 될까봐 금지하는 지각, 규칙 어기기, 외출, 늦은 귀가, 말 많이 하기	2(1.8)	9	6(4.9)	16	3(4.5)	12
	- 돈 꾸기, 과소비 금지	3(2.8)	25	5(4.1)	33		3
인간 관계	- 부모공경과 효도를 방해하는 불복종	1(.9)	6	2(1.6)	5		
	- 가족신뢰/우애 해치는 이기적 생각, 형제간 싸움	7(6.4)	9	4(3.3)	15		
	- 친구관계를 해치는 무시하기/괴롭히기/ 놀리기/폭력/왕따	1(.9)	10	1(.8)	9	5(7.6)	10
	- 타인배려 않기, 사회적 약자 무시	3(2.8)	16	10(8.2)	22	12(18.2)	22
	- 예의 없는 싸움/욕/거친 말/말대답	19(17.4)	78	18(14.8)	76	5(7.6)	38
	- 원만한 대인관계를 해치는 기본질서/ 학교생활 질서/소란스러운 행동과 큰소리/ 이기주의/약속과 시간약속 안 지키기/ 나쁜 사람이 많아서 PC방 출입금지	2(1.8)	8	4(3.3)	9	9(13.6)	31
기타			6	2(1.6)	8	1(1.5)	2
	합계	109(100.0)		122(100.0)		66(100.0)	

배려 않기, 돈 꾸기, 과소비, 건강해치기, 기본 질서 해치기이다.

3. 우리나라의 부-모-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체계와 일상적인 양육행동 간에는 일관성이 있는가?

부-모-교사가 아동의 성공에 필요한 이상적 자질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상적 아동의 모습인 근면성, 전문성, 리더십, 주의집중력, 친구관계를 길러주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권장/금지하는 양육행동이 같은 맥락인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적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체계와 권장행동간 일관성

본 연구의 부-모-교사는 모두 근면성과 전문성을 기본적인 자질로 갖추기를 기대하였으며, 교사는 리더십과 주의집중력을, 부모는 좋은 친구관계를 이상적인 아동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보았다. 부-모-교사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행동은 근면성과 정직이었으며, 다른 행동은 부모의 경우에 건강, 부모공경과 가족우애이며, 교사의 경우에 리더십과 타인배려로 나타났다. 이상적 아동관과 일상적 권장행동 간에는 부-모-교사 모두 근면성에서 일치한다. 또 권장행동 중 교사의 경우에는 리더십에서 일치한다. 부모의 경우에 “정직, 타인배려”는 ‘좋은 친구관계’를 위한 행동이라 보면 간접적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부-모-교사 모두 아동의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일상적인 권장행동은 언급하지 않았고, 교사의 경우에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한 행동은 중요한 순위로 거론하지 않

았다.

이상의 권장행동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부-모-교사들은 이상적인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 신념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양육행동을 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이상적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체계와 금지행동간 일관성

본 연구의 부-모-교사는 모두 근면성과 전문성을 기본 자질로 기대하였으며, 교사는 리더십과 주의집중력을, 부모는 좋은 친구관계를 자질로 보았다. 또한 부-모-교사가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은 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배려 않기이며, 다른 금지행동은 부모의 경우에 건강해치기 금지, 돈 꾸기와 과소비 금지이며, 교사의 경우에 기본질서 해치기 금지로 정리된다.

이러한 이상적 아동관과 부-모-교사의 일상적 금지행동 간에는 관련지어 분석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다만, 금지행동 중 “거짓말과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직한 행동”과 “싸움이나 욕 등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예의바른 행동은 이상적 아동관의 좋은 ‘친구관계’를 위한 금지행동이라 보면 간접적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근면성, 전문성, 리더십, 주의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은 부-모-교사 모두에게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상적 아동관과 금지 행동 간에 일관성이 없는 요인은 부모의 경우에 자녀의 건강해치기, 돈 꾸기와 과소비였고, 선생님의 경우에 기본질서 해치기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질적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부-모-교사들은 이상적인

표 5. 모의 성공적 자질과 가족-학교 교류 정도

교류 정도	모 성공적 자질			전체
	건강	성격	대인관계	
낮음	2(5.7)	11(31.4)	22(62.9)	35(100.0)
높음	2(4.1)	30(61.2)	17(34.7)	49(100.0)
전체	4(4.8)	41(48.8)	39(46.4)	84(100.0)

$$\chi^2 = 7.316, df = 2, N = 84, p < .05, \text{Cramer's } V = .295$$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부-모-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 아동관은 가족-학교의 교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학교의 교류 정도⁴⁾에 따라 성공에 필요한 자질, 권장행동, 금지행동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학교의 교류 정도에 따라 아버지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성공에 필요한 자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학교 교류 정도가 높은 어머니들이 성격 관련 특질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자질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반면, 가족-학교 교류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은 대인관계가 성공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보았다.

4) 가족-학교의 교류 정도는 부모가 학급활동과 특별활동을 돕는 정도, 학교행사 참여정도, 학교→가정 통신문 횟수, 어머니→교사 간 전화, 편지, 메일을 보내는 정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이를 다시 상위 1/3 집단과 하위 1/3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모와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아동관과 이상적 아동관에 나타난 양육신념이 일상행동으로 실천되는지 그 실태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 결과가 우리 사회의 부모역할과 교육, 또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상적인 아동은 ‘근면성, 전문성, 리더십, 주의집중력과 좋은 친구관계’를 갖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사는 모두 일상적으로 ‘근면성과 정직함’을 권장하고 ‘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배려 않기’를 금지한다.

이상적 아동관 덕목과 일상적 권장행동 중 ‘근면성’은 부-모-교사 모두가, ‘리더십’은 교사가, ‘좋은 친구관계’는 부모가 권장하였다. 전문성과 주의집중력 함양을 위한 권장행동은 아무에게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상적 아동관 덕목과 부-모-교사의 일상적 금지행동 간에는 관련성이 별로 없었다. 근면성, 전문성, 리더십, 주의집중력 함양을 위한 금지행동은 아무에게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좋은 친구관계를 위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거짓말과 도둑질을 않는 정직한 행동과 싸움, 욕, 거친 말을 않는 예의바른 행동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편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가족-학교의 교류 정도 간 일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에 반영된 양육신념은 부분적으로 부-모-교사의 양육행동으로 실천되고 있음과 또 학교-가족

의 교류정도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이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정과 결과를 생태학적 용어로 풀이하면 본 연구에서는 거시체계가 공유하는 이상적 아동관을 탐색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에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정과 학교라는 미시체계와 두 미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담당자인 부-모-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기존의 아동-부, 또는 아동-모로 이루어지는 이인조 연구 설계에서 탈피한 것이다. 비록 원시적인 형태이나 “N+2”체계를 넘어서는 연구 설계로 아동-부-모-교사로 이루어진 미시체계들을 탐색한 것은 인간발달의 생태학적 도메인을 확장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적 아동관에 반영된 부-모-교사의 양육신념체계와 양육실태를 조사하는 일은 미시체계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시도였다. 비록 두 체계 간 상호작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거시체계인 한국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이상적 아동관을 창출하는데 두 개의 미시체계 간 상호작용이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부모로 대표되는 가족과, 교사로 대표되는 학교간의 상호작용이 작동하고 있음을 부분적이거나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중간체계의 효율성이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중심에 두고 양육의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두 개의 미시체계에서 부-모-교사라는 양육 대행자를 통해 거시체계인 한국 문화권이 공유하는 이상적 아동관과 이에 반영된 양육신념체계를 탐색하고, 두 미시체계에서 수행되는 실제 양육행동을 조사하여 양육신념과의 일관성을 살펴봄으

로써 가족과 학교의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간체계의 기능을 검토한 설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부모역할 및 교육에 관하여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상적인 아동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거론된 근면성은 부-모-교사 모두에 의해, 리더십은 교사에 의해, 좋은 친구관계를 뒷받침하는 행동-‘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배려 않기, 기본질서 해치지 않기’의 금지행동과 정직함을 권장하는 행동-은 부-모-교사 모두에 의해 실천되고 있다는 결과는 학업 중시의 양육가치관 때문에 자녀의 공공의식에 대한 교육이 희박하여(김지신, 1996) 자녀 양육에서 시민정신이 소홀하게 취급된다고 보고하였던 한국궐련조사연구소(1980)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2006년도에 이루어진 본연구가 이전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육행동 중 부-모-교사 간 불일치를 보인 자녀의 건강 챙기기, 부모공경 및 가족우애 권장, 돈 꾸기와 과소비 금지, 기본 질서 해치지 않기 등은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불일치라고 보기보다는 해당 양육현장에서 해당 양육 대행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권장/금지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나, 본 연구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양육행동을 부-모-교사가 전문성 계발이나 학업성취보다 더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보고는 아직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없는 결과이다. 학업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교육열로 유명한(김영화, 1992; 이미숙, 1993; 현은강 외, 1997) 우리나라의 부모와 교사들이 자녀의 전문성과 주의집중력을 이상적인 자질로만 꼽고 실제로는 그러한 자질을 길

러주기 위한 행동은 뒤따르지 않았다. 일상행동에서 우선순위로 꼽지도 않았으며, 권장/금지 행동 목록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실제로 부-모-교사가 주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은 아동에게 일임하거나 사교육에 전가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들이 보고한 대로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즉, 우리나라의 부-모-교사는 아동에게 성공적인 자질을 갖춰줌에 있어 전문성과 주의 집중력을 길러주는 행동보다 근면성 및 기타 자질에서 더 바람직한 아동으로 사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기존의 양육행동 측정도구에 이러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다루는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두 번째 해석은 부-모-교사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실제로 불일치할 가능성이다. 이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되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세 번째 해석은 대상자 편견(selection bias)과 같은 체계적 오류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응답(response bias)하는 무작위적 오류의 가능성이다. 본 연구가 서울의 한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인한 오류라면 다른 지역 대상자를 보완하여 비교해 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응답한 경우라면 대상자가 학부모나 교사라는 역할이 알려지지 않는 환경에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리라 본

다. 세 번째 해석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조사환경을 개선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자료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⁵⁾.

네 번째 해석은 이상적 자질, 권장행동, 금지행동에 대한 질문을 일관성 있게 자녀의 성공과 관련지어 응답하게 하였는가라는 점이다.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물었으면,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에 대해서도 ‘자녀의 성공을 위한’ 권장/금지행동을 물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연구자의 접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이다. 그렇게 하였으면 상관정도가 분명히 더 높게 나왔을 것이나, 본 연구는 일상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그 안에서 이상적 아동관과의 관련성을 찾고자 하는 탐색연구이었다. 접근관점에 대한 쟁점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첫 번째 해석에 입각하여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정 문화권의 가치관이 차세대에게 전수되어 이상적인 인간형을 양성하는 경로는 차세대 이상형에 대한 거시체계의 문화적 가치 → 부모와 교사와 같은 양육자의 양육신념 → 양육행동으로 전개된다(Harkness et al, 2000).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양육신념은 문화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양육행동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실제 양육행동도 다르게 나타난다(McGillicuddy-De Lisi & Siegel,

5) 양육신념과 실제 행동 간의 차이가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경향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안지영, 2001, 2003; 이기숙 외, 2001; 황혜신, 2002; Damon, 1977; Krebs, 1967).

1995). 부모의 신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며(Miller, 1988), 실제 양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김지신, 1996; 안지영, 2001, 2003; 장은경 외, 1998; Goodnow, 1988; Siegel, 1985).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과정과 기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규명한 차세대 이상형의 사회화 과정과 경향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근면성, 전문성, 리더십, 주의집중력과 좋은 친구관계’를 갖춘 이상적 아동관에 반영된 부-모-교사의 기대는 부-모-교사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져 근면성과 정직함은 부-모-교사에 의해, 리더십과 타인배려는 교사에 의해 권장되고 있었고, 부-모-교사 모두가 금지하는 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배려 앎기,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행동의 실천은 좋은 친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양육행동이 각 문화권 고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명제와도 일치한다(Harkness & Super, 1995; Power, Kobayashi-Winata & Kelly, 1992),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부-모-교사는 아동에게 지적으로는 전문성과 주의 집중력을, 일상에서는 근면성을, 사회적으로는 리더십과 좋은 친구관계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기대는 미국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지적 유능함과 자신감, 긍정적 행동과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Harkness et al, 2000)과 유사하다. 미국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우리나라 부-모-교사도 중요시한다는 발견은 두 국가의 부모가 전인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발달을 기대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의 양육가치관이 서구 사회의 양육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Bornstein & Cote, 2004; Harkness & Super, 1995; Lieblin, 2004; Rubin & Chung, 2006; Scott & Hill, 2001).

한편, 본 연구의 부모가 일상적으로 권장하는 행동의 1순위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다. 성공적 자질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행동이 전문성이나 주의 집중력 등의 기술이나 자질 개발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는 점에서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끝으로, 한 사회의 영속적인 발전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신념과 양육방식이 그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발달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정과 학교의 양육목표와 양육행동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발견한 부모와 교사 간 근면성에서 나타난 양육신념의 일치, 근면성과 정직함을 권장하는 행동의 일치, 싸움, 욕, 거친 말, 거짓말, 도둑질. 타인배려 앎기, 기본질서 해치기를 금지하는 행동의 일치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도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본다. 자녀 교육을 주제로 “이상적 아동의 모습”에 대한 신념과 일상적인 양육행동을 관련지으려 시도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하나의 연구에서 부모가 있는 가족, 교사가 있는 학교라는 사회 단위들 간 관련성의 측정을 시도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

여 실시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참고문헌

- 구순주, 최보가 (1996).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07-120.
- 김지신 (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화 (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이기숙, 정미라, 장영희, 홍기영 (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상을 위한 유아교육의 혁신.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미숙 (1993). 가족의 가치관 및 구조적 특성이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 *가족학논집*, 5, 19-42.
- 이완정, 현온강 (1999). 영아. 걸음마기 자녀양육신념의 세대 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97-110.
-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 황혜신 (2002).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현온강, 공인숙, 김영주, 이민정 (1997). 유아 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 *한국아동학회지*, 18(2), 67-93.
- Bornstein, P. (1994). Patterns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Mexican Famil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JBD*, 17(3), 423-446.
- Bornstein, M., & Cote, L. (2004). Mothers' Parenting Cognitions in Cultures of Origin, Acculturating Cultures, And Cultures of Destination. *Child Development*, 75(1), 111.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2nd ed.). NY: Elsevier.
- Damon,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NY: Jossey-Bass.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uzell, J., & Vernon-Feagans L. (2004). Parental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75(1), 112.
- Harkness, S., & Super, C. (1995). Culture and parenting.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2, pp. 211-234). NJ: LEA.

- Harkness, S., C. Moreno, C. Super, G. Axia, B. Welles-Nystrom, V. Kolar, P. O. Zylicz, & N. van Tijen (2000). Cultural Model of the Child and the Family. Symposium proceeding for XVIth Biennial Meetings of ISSBD, July 11-14, Beijing, China.
- Krebs, R. (1967). *Some relations moral judgement, attention, and resistance to temp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Lieblin, L. (2004).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beliefs and behaviors to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ace University.
- McGillicuddy-De Lisi, A., & Sigel, I. (1995). Parental beliefs.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 333-358). NJ: LEA.
- Miller,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Okagaki, L., & Divecha, D.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35-67. Hillsdale, NJ: LEA.
- Power, T., Kobayashi-Winata, H., & Kelly, M. (1992). Child-rearing patter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 Cluster analytic study. *IJBD*, 15(2), 185-205.
- Richman, A., Miller, P., & Levine, R. (1992). Cultural and educational variations in maternal responsiveness. *DP*, 28, 614-621.
- Rothbaum, F., Weisz, J., Pott, M., Miyake, K., & Morelli, G. (2000). Attachment and culture. *American Psychologist*, 55(10), 1093-1104.
- Rubin, K., & Chung, O.(2006).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Hove, NY: Psychology Press.
- Siegel, I.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345-371). Hillsdale, NJ: LEA.
- Scott, D., & Hill, J. (2001).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ing beliefs in first-time mothers from the pre- to postnatal period.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19(2), 105-119.
- Whiting, B., & Edwards, C.(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The formation of social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07. 01.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2. 20.
최종게재결정 : 2007. 03. 01.

An Ecological Analysis of Korean's Parenting & Parenting Beliefs: Reflected in Cultural Images of Successful Child by Father-Mother-Teacher Triads

Chong-Hee Yoon

Department of Social Work,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wofold. One was to explore Korean's cultural image of successful child synthesized from qualitative responses of father-mother-teacher triads about thre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that a child needed in order to become successful in Korean society. The other was to investigate whether parenting beliefs as reflected in their cultural images was practiced as parenting behaviors in their daily interactions with children. The subjects consisted of father-mother-teacher triads, whose children were 6th and 9th grades, residing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Korea. A total of 158 fathers and mothers, respectively and 75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 open-ended qualitative questionnaire was used. The subjects were asked to freely write down priorities of, and reasons for thre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qualities that a child needed, in order to become successful in Korean society. They were also asked to freely write down priorities of, and reasons for three most important daily behaviors that they encourage/discourage in their childre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Korean's cultural image of successful child was associated with clusters of such descriptors as diligence, professionalism, leadership, intellectual curiosity and concentration, and friendship: that daily behaviors encouraged commonly by father-mother-teacher triads were diligent and honest behaviors of children; that those discouraged were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lying, stealing, and inconsiderate behaviors. Discrepancies were also found in that parents encouraged their children to take a good care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to love and respect parents and families, while teachers to foster leadership and to take considerate care for others; that parents discouraged their children from ruining their health, borrowing money, and consuming conspicuously, while teachers from troubling others. These findings suggested, in part, that Korean's parenting beliefs as reflected in the cultural image of successful child was practiced daily as parenting behaviors.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in ecological terms. Implications for the cultural universalities and particularities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beliefs, parenting behaviors, cultural images of successful children, ecological study, father-mother-teacher triads